하나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구세주를 만났으니 여러분들 다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이라는 거죠? 구세주가 안 되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구세주 되려면 먼저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겨서 이긴자가 된 다음에 구세주가 되게 되어 있어요. 구세주가 되어야 구원이지 구세주가 안 되면 꼭 죽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구세주 되는 것이 21일 동안에 끝나는 거예요. 21일 동안에 구세주가 안 되면 또 21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1일 시작하는 그 기간에 구세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구세주 되는 방법을 세밀하게 가르쳐주죠? 구세주 되는 방법을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데도 만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긴자가 되지 않고 만날 실패자가 되어서 허덕거리다가 결국은 땅속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남들은 다 이긴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돼서 날아다니면서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자기만 죽어서 땅속에 기어 들어가서 썩으면 되겠어요? 안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방법, 나를 이기는 방법을 이 사람은 가르쳐주죠? 영생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죠? 순간순간이 사람은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 자신이 없는 마음이 발동을 해서 항상 자신이 없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근심 걱정 가운데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일 년 후에 먹을 거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일은 오늘에 족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그날 열심히 충실히 일하면 내일 먹을 것도 생기고, 모레 먹을 것도 생기고, 일 년 후 먹을 것도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미리미리 염려를 하고 미리미리 예산하는 음란죄를 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피가 썩어서 죽는 몸이 돼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자신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생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에게 생명과 몸과 모든 전체를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 맡겨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항상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고로 그런고로 먹는고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감사 안 해야 돼? 감사하면서 먹고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그런 사람이 정도를 걷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정도를 걸어서 기어이 여러분들이 천당에 들어가야 돼, 지옥에 가야 돼? 천당에 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나라는 의식이 죄의 뿌리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는 행동을 죄로 여기고 있죠? 잘못하는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건 나라는 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나라는 의식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는 것이 그게 죄에요. 나라는 의식의 종노릇 하는 게 죄에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알아? 이 세상 종교가들이 알아? 죄가 뭔 줄 몰라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야고보서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 욕심이 죄라고 그랬죠? 욕심 자체가 욕심 부려, 나라는 의식이 욕심 부려? 욕심이 죄니까 나라는 의식은 욕심의 근본이 되는 죄죠? 그러니까 원죄죠? 나라는 의식이 원죄, 원죄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나라는 의식이에요.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이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를 하고 있는 거야,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고 그러는 거야.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있으니 그게 마귀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세주 조희성님

반대생활을 하라

그래서 우리 승리제단은 반대생활을 하라고 그러죠? 내가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내가 졸리면 안 자고, 내가 일하기 싫으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반대생활을 해야 나라는 의식이 점점 약해져요. 나라는 의식이 점점 약해지면 나라는 의식의 마귀를 쉽게 죽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약하게 만든 다음에 죽이기가 쉽지 강해진 다음에는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약하게 만들려면 반대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 미워하면 마귀가 점점 강해져요. 미운 사람 좋아하고 미운 사람 사랑해 주면 마귀가 점점 약해져요. 이런 걸 이긴자나 알지 이겨보지 못한 사람 이런 걸 알겠어? 이게 도 닦는 근본이야.

가짜 나를 버려라

어느 도(道)든지 나를 버리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도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고 그랬어요. 무아경지. 나라는 게 없어져야 도통한다 이 소립니다.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려라, 그랬죠? 나를 항상 버리면 천당 누가 가?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나라는 게 진짜 나가 아니고 가짜 나예요. 마귀의 나를 죽여 버리고 진짜 나가 내가 되어야 진짜 나라는 내가 천당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이죠? 진짜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 옥에 갇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살면 죽을까 봐 마귀가 우측으로 가라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라면 좌측으로 가고 시키는 대로 항상 평생을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을죄가 마귀의 종노릇 한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게 죽을죄예요. 아시겠어요?

세포가 썩어서 죽는 것이다

나라는 의식이 사람을 미워하면 피가 썩어요. 생명의 피가 썩어요. 그러기 때문에 피가 자꾸 썩어가지고 썩은 피가 많아지면 늙어지고, 썩은 피가 많아지면 재생되는 세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살아 있는 세포가 없어지고 세포가 전부 죽어 있으니까 죽은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사람의 피로써 새로운 세포가 조성되는 거예요. 이 살의 세포가 수명이 제일 긴 세포가 28일이에요. 28일만 되면 세포가 죽어 버려요. 죽어서 목욕할 때에 때가 나오죠? 때가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새로운 세포가 안 썩을 피로 조성되는 거예요. 안 썩은 피로 새로 조성되어서 그래서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과학자들도 이 세상 의학박사들도 세포학자들도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왜 아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명과학을 새로 논하는 거죠?

서울대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생명과학을 이 사람이 새로 논하는데 한동안은 서울대학생들이 많이 나왔죠? 서울대학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깜짝 놀라가지고 생명과학에 대한 회를 조직해가지고 대학교에서 활동한 일이 있었죠? 그 학생들이 생명과학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교수진까지도 그게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교수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과학도 있는가? 이 세상 과학자들이 모르는 학문을 논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단이 참 막 번창해 나갈 무렵에 이 사람이 옥중에 가게 되었죠? 옥중 가게 되니까 좌절되면서 그 당시 서울대학생들이, 많이 나오던 학생들이 이 사람이 옥중에 가버리니까 실망을 하고 전부 흩어지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 그래, 없어서 그래? 신앙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세계 대통령들의 편지들

이 생명과학의 학문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까, 깜짝 안 놀랄까? 깜짝 놀래죠? 여러분들 한동안 초창기에는 영생학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각 나라 대통령에게 보냈죠? 각 나라 대통령한테 보내니까 각 나라 대통령들이 다 답변을 해왔어, 안 해왔어?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소련 대통령이든지 다 답변을 해왔죠? 이와 같이 각 나라 대통령들이 다 깜짝 놀란 거야. 영생학 책을 보고. 사람이 죽지 않는 학문이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죠? 필리핀의 여자 대통령은 그런 세계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 사진까지 넣어서 보냈어요. 자기 사진까지 넣어서 보내온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뿐이었어요.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보내고, 각 나라 대통령이 이 사람한테 편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전 세계 대통령들이 다 놀랜 거야, 안 놀랜 거야? 깜짝 놀랜 거죠? 세상에 사람이 다 죽는 줄만 알았는데 죽지 않는 길이 있다니 이거 세상에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세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죠? *

2001년 1월 1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6장 40년의 광야생활≫

(6) 금송아지

(6) 금송아지

(지난호에 이어서)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돌판은 두 조각이 나서 깨어졌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습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 두셨습니까?"

아론은 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아우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젠 모세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데도 없으니 대신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 하여 불 속에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자기 친형 아론이 너무나 강직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명을 거스르는 백성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아론의 말이 모세에게는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숭배한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을 염려한 아론이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아론 자신의 목숨 하나로 대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던 사람들은 그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 스스로 희생제물로 자청하자, 그들은 크게 감동하여 울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론과 레위지파의 사람들과 단지파의 사람들만은 금으로 숫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류하였나이다. 우상숭배를 한 자는 저희들이니, 저희가 죽을죄를 졌나이다. 저희를 벌하소서."

모세가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림 (출32:19)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전멸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는 가운데서 사십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큰 죄를 범하였소.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서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고 오겠소."

신명기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 주 사십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실 수 없으시면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한편 아론과 모세의 희생적인 행위로 인하여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자, 공중권세 잡은 마귀신은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종노릇을 하며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자, 마귀는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 그들의 심령을 점령하여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분노한 마귀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서진 금송아지의 가루가 섞여 흐르는 냇물을 먹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심령만은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금송아지를 부순 모세를 원망하고 금가루가 흐르는 냇물을 먹지 않았던 3천 명 가량 되는 무리들의 심령에 마귀가 쉽게 점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칼을 들고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사람들과 함께 하시어, 레위사람들이 칼을 꺼내들고 마귀 들린 3천 명의 악인들을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1] *

– 다음호에 계속 –

안젤라

1 출애굽기 32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칼을 들게 하여 삼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죄인에 의해서 써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가 죽었다는 것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증거요, 성경 또한 죄인의 입장에서 썼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온전하게 이치에 맞게 푸는 것입니다.